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고용 시장, 냉각 조짐 보인다... 연준에는 희소식
- WSJ: 팬데믹 원격 학습 졸업자들, 업무에 준비 부족
- WSJ: “지금은 연준의 금리 인상 매파가 물러날 때”

[미국 금융]

- Bloomberg: 왜 Fitch는 미국 신용등급을 AA+로 강등한 이유는
- Bloomberg: 미국, 국채 발행 증가로 국채 1천30억불 매각 예정
- Bloomberg: 미 근로자들, “은퇴 위해 1백80만불 필요”

[오일]

- WSJ: 오일 가격 1백불 인상 가능성도... 침체 우려 완화와 공급 제한 탓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아마존, 홀푸드 인수후 식료품 사업 개편 시행
- WSJ: Toyota 랜드 크루저 미국으로 돌아오다
- WSJ: CVS, 비용 절감 추진하는 가운데 수요 증가 보고
- WSJ: “AI로 생성된 데이터, 의료 분야에 큰 도움”
- WSJ: Starbucks “최고 매출 달성했으나 수익은 감소”
- WSJ: 고용주, 근로자의 체중 감량 약품 접근 차단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Jobs Market Shows Signs of the Gradual Cooling the Fed Wants 고용 시장, 냉각 조짐 보인다... 연준에는 희소식

- 미국 노동 시장이 새로운 완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자리가 천천히 줄어들고, 경기를 냉각시켜 인플레이를 낮추는 데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
-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6월 일자리는 전월 대비 3만 4천 개 감소한 960만 개다. 이는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해고는 6월에 150만 건으로 안정적으로 유지 되었다.
- 미 고용주들은 6월에 약 20만 9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했다. 이는 2020년 말 이후 가장 적은 상승폭이다.
- 채용 공고도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6월에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는 600만 명을 초과했다.
- 이코노미스트들은 7월에 고용주들이 꾸준히 일자리를 추가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말한다. 또한 미 노동부에 따르면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높지만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

WSJ 기사

WSJ: 'How Do I Do That?' The New Hires of 2023 Are Unprepared for Work**팬데믹 원격 학습 졸업자들, 업무에 준비 부족**

- 팬데믹 기간 동안 수년간 이어진 원격 학습의 여파가 미국의 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로 인해 업무 수준에 걸맞은 전문 서비스 일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
- 또한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분기 동안 국가 생산성이 적어도 1948년 이후 가장 긴 기간 동안 하락한 이유라는 것이다.
-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소프트 스킬도 부족하다는 것. 이에 따라 고용주들은 적합한 졸업생을 찾는데 힘들어 하고, 채용한 후에 신입직원들의 기본 기술을 채우기 위해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전문 컨설팅 회사는 고용주들에 업무 기술만을 기준으로 채용하기 보다 배우려는 의지도 살펴 보라고 조언하고 있다.

WSJ 기사

WSJ: It Might Be Quitting Time for the Fed's Rate Hawks**“지금은 연준의 금리 인상 매파가 물러날 때”**

- 물론 지난해 처럼 매달 직장을 그만두는 미국인이 많지는 않다. 이는 연준이 임금 인플레이션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 어제 화요일 연방 노동부는 직장 사직자 숫자와 관련해 5월의 410만 명에서 계절 조정 후 6월에는 380만 명이 직장을 그만뒀다고 발표했다.
- 이로 인해 전체 고용에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의 숫자인 이직률은 5월의 2.6%에서 2.4%로 감소했다. 과거 2021년 11월과 작년 4월에도 이직률은 3%를 기록했다.
- 하지만 6월의 이직률은 2019년 평균인 2.3%보다 여전히 약간 높은 수치다. 이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치다.

WSJ 기사

[미국 금융]**Bloomberg: Why the US Credit Rating Was Cut by Fitch and What It Means****왜 Fitch는 미국 신용등급을 AA+로 강등한 이유는**

-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기존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강등했다.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은 2011년 이후 12년 만이다. 피치는 등급 하향의 이유로 미국 재정 악화와 국가채무 부담 증가를 지적했다.
- 즉,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채 한도 교착 상태(계속 몇년마다 채무 불이행 가능성에 직면)와 ‘거버넌스의 침식’(erosion of governance) 때문이라고 했다.
- 양당의 교착 상태는 5월말에 해결 되었지만, 정치 지도자들은 늘어나는 부채 부담에 대한 채권 상환을 이행 하겠다는 불확실성을 야기 시켰다는 것이다.
- 현재 세계적으로 최고 등급을 받고 있는 국가는 호주, 독일, 싱가포르, 스위스.
- 한편 연준의 금리의 인상 조치는 피치의 신용등급 인하보다 미국 금리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번 등급 강등 조치와 관련 "자의적이고 오래된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며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Plans \$103 Billion Debt Sale, as Issuance to Keep Rising 미국, 국채 발행 증가로 국채 1천30억불 매각 예정

- 연방재무부는 다음 주 분기별 환매 경매에서 3년, 10년, 30년 만기 국채를 포함해 1천30억 달러 규모의 장기 증권을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번 총 9백60억 달러에서 증가한 것으로 전문가들 예상치보다 더 큰 규모다.
- 이러한 매각 계획은 Fitch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강등시킨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 Fitch는 향후 3년동안 미국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방재무부는 이번 분기에 약 1조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며, 이미 국채 발행 규모는 늘어난 상태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Workers Say They Need \$1.8 Million for Retirement 미 근로자들, “은퇴 위해 1백80만불 필요”

- 미국 근로자들 입장에서 은퇴에 필요한 금액이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은퇴 저축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 오늘 수요일 Charles Schwab의 전국적인 설문 조사 결과 현재 미국의 평균 저축 목표는 1백80만불. 이는 작년의 1백70만불에서 늘어난 수치.

- 1천명의 401(k) 오랜 가입자 중에 80%는 인플레이와 시장 변동성 때문에 올해 더 많은 저축이 힘들어졌다고 답했다.
- 또한 응답자의 36%는 저축이 힘들어져 은퇴를 늦출 것이라고 답했다.

Bloomberg 기사

[오일]

WSJ: Oil Prices Perk Up as Recession Worries Ebb and Supply Tightens 오일 가격 1백불 인상 가능성도... 침체 우려 완화와 공급 제한 탓

- 경제 전망이 회복되고, 석유 산유국들의 공급 축소 효과가 나타나면서 유가가 3개월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
- 일부 분석가들은 벤치마크 원유 선물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올해까지는 배럴당 80달러 내외로 거래되다가 배럴당 1백달러를 향해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 글로벌 원유 기준인 브렌트유 선물은 7월에 13% 상승하여 1년 반 만에 월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수요일 장 초반에는 배럴당 85.50달러에 거래되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Amazon Unveils Biggest Grocery Overhaul Since Buying Whole Foods

아마존, 홀푸드 인수후 식료품 사업 개편 시행

- 아마존은 6년전 홀푸드 마켓을 인수한 후에 식료품 사업을 개편하여 매장을 리뉴얼하고, 고도로 자동화된 새로운 창고를 테스트하고, 프라인 가입자가 아닌 일반 고객에게도 신선한 식품을 새롭게 제공하고 있다.
- 이같은 움직임은 또한 Whole Foods, Amazon Fresh, Amazon.com 등 다양한 이커머스 슈퍼마켓 제품을 하나의 온라인 카트로 통합할 예정이다.
- 아마존의 이같은 조치는 무료 1조5천억달러의 미 식료품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려는 계획으로 기존 전통적인 소매업 임원들도 대거 영입했다.

Bloomberg 기사

WSJ: Toyota's Land Cruiser to Return to U.S.

Toyota 랜드 크루저 미국으로 돌아오다

- 토요타는 오늘 수요일 도쿄 행사에서 2000년대 이전 버전의 차량을 연상시키는 신형 '랜드 크루저'를 선보였다.
- 이 회사는 내년에 신차를 미국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 랜드 크루저가 단종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은 기간이다.
- 2021년 미국에서 단종된 랜드 크루저는 8만 불부터 시작해 애호가들 사이에서만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이번 신형 랜드 크루저의 미국 가격은 5만 불 중반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 최근 몇 년 동안 자동차 회사들은 새로운 버전의 SUV와 기타 수익성이 높은 대형 차량으로 전시장을 채우고 있다.

WSJ 기사

WSJ: CVS Reports Stronger Demand Amid Cost-Cutting Push CVS, 비용 절감 추진하는 가운데 수요 증가 보고

- CVS 2분기 매출이 의료 혜택 사업 성장에 힘입어 10.3% 증가했다.
- 이 회사의 의료 혜택 부문 매출은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17.6% 증가한 267억 불이다. 의료 서비스 부문은 7.5% 증가한 462억 불.
- CVS는 최근 서비스 범위를 확장 했다. 올 여름 초에는 노인 대상 1차 치료 클리닉을 운영하는 Oak Street Health, 지난 3월에는 홈 헬스케어 회사인 Signify Health를 인수했다.
- CVS는 이번 주에 비용 절감을 위해 약 5천 개의 일자리를 감원하겠다고 밝혔다. 주로 기업 직무에서 감원될 것이다. 또한 출장비와 컨스턴트 및 공급업체 사용도 줄이고 있다.
- 이 회사는 이번 분기에 4억 9천 6백만 불 세전 구조조정 비용을 보고했으며, 2023년 말까지 끝낼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WSJ: AI-Generated Data Could Be a Boon for Healthcare—If Only It Seemed More Real “AI로 생성된 데이터, 의료 분야에 큰 도움”

- 의료 기업들은 현재 합성 데이터(synthetic data)의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실제 데이터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구축한 것이다.
-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기술 과제로 인해 업계에서 채택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많은 기업이 사용을 주저하고 있다.
- 이 기술의 높은 비용과 적은 수의 공급업체가 기술 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합성 데이터가 대상 집단을 정확하게 나타내는지,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지 확인해야 된다는 점이다.

- 제약 및 보건 연구자들은 수년 동안 이 기술을 실험해 왔다. 일반 규제 장애물 없이 특정 하위집단에 대한 약물 영향 등을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내년까지 AI 및 분석 프로젝트 개발에 사용되는 데이터 60%가 합성으로 생성될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WSJ: Starbucks Rings Up Record Sales as Consumers Splurge on Complex Coffee Drinks **Starbucks “최고 매출 달성했으나 수익은 감소”**

- 스타벅스는 최고 매출을 보고했지만, 직원 임금 인상과 카페에 대한 투자로 인해 수익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 이 회사는 92억 불의 매출을 기록했다.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 지난 한 해 동안 이 회사는 음료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판매 호조를 보였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고객들이 시럽 및 기타 추가 서비스 기능을 통해 추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 “스타벅스는 공급망, 인력 및 장비를 개선해 고객 쇼핑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최고 경영자인 Narasimhan이 말했다.
- 스타벅스는 작년에 매장 장비에 투자하고, 매장 디자인을 개선하며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WSJ 기사

WSJ: Employers Cut Off Access to Weight-Loss Drugs for Workers **고용주, 근로자의 체중 감량 약물 접근 차단**

- 많은 사람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고용주들은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해 해당 보험 적용을 중단하고 있다.
- Ozempic 약품 등 인기 약품에 대한 지출이 환자 한 명당 한 달에 1,350불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치솟고 있다. 이러한 지출로 인해 고용주가 자금을 지원하는 일부 보험 플랜 재정이 압박을 받는 것.
- 이러한 약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막대한 추가 비용 때문이다.
- “이는 의료 보험에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고 전국 의료 구매자 연합(NAHPC: National Alliance of Healthcare Purchaser Coalitions)의 최고 경영자 Michael Thompson이 말했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미 국채, 신용등급 강등에도 '안전자산' 인식에 강세****투자자들, '매수 포지션' 유지..."랠리 촉발될 수도"**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단계 강등하면서 25조 달러 (약 3경2천450조 원) 규모의 미국 국채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은 미 국채가 대체 불가능한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에 따라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국제신용평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처음으로 미국 신용등급을 하향했던 2011년 당시를 감안하면 오히려 미 국채 시장의 랠리가 촉발될 수 있다고 마켓워치는 분석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